

천적 만나는 KIA “KT, 그냥은 못 보내”



최형우



황재균



강백호



로하스



박찬호



오늘 6위 vs 7위 대결 ... 올 4승 10패 열세
황재균·로하스·강백호 ‘한 방’ 요주의
시즌 마지막 2연전서 ‘자존심 회복’ 주목

‘호랑이 군단’이 설욕전을 위해 수원으로 간다. KIA 타이거즈는 5·6일 케이티위즈파크에서 KT 위즈와 시즌 마지막 대결을 벌인다. 두 팀은 예상과 다른 가을을 보내고 있다. 4년 연속 ‘가을 잔치’를 기대했던 KIA는 시즌 내내 5위만 올라보면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김기태 감독이 자진 사퇴하는 등 사연 많은 2019 시즌이었다. 이강철 감독으로 새 진용을 짠 KT는 창단 첫 포스트 시즌을 기대하며 막판 스퍼트를 하고 있다. KT의 5강 싸움에 힘을 실어준 팀이 바로 KIA다. KIA는 앞선 KT와의 경기에서 4승 10패로 절대적인 열세를 기록했다. 첫 경기부터 고였다. KIA는 3월 29일 에이스 양현종을 앞세워 수원에서 KT와 시즌 첫 대결을 벌였고, 결과는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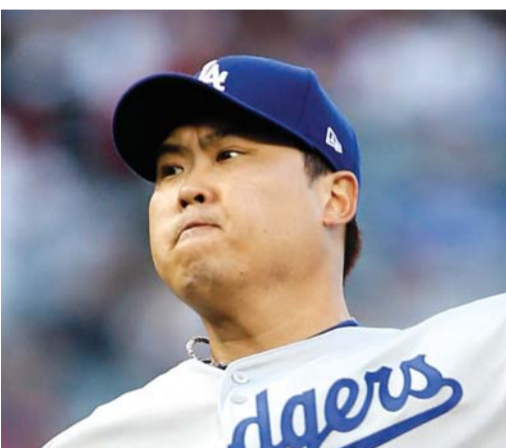
자역전패였다. 초반 페이스가 좋지 못했던 양현종이 6이닝 12 피안타(1홈런) 1볼넷 4탈삼진 6실점으로 부진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다. 이어 등판한 터너도 강백호에게 투런포를 내줬고, 팀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5이닝 2실점의 패전투수가 됐다. 첫 대결에서 루팅 시리즈를 기록한 KIA는 두 번째 만남에서는 1승도 쟁기지 못했다. 양현종이 5월 14일 KT와의 홈경기에서 7이닝 1실점으로 앞선 부진을 만회하는 피칭을 선보였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지 못했다. 경기가 1-6패로 끝나면서 양현종은 다시 패전투수가 됐다. 다음 날에는 타선이 상대 실책 등에 힘입어 1회부터 3점을 만들어냈지만 결과는 4-7 역전패. 마지막 날에도 KIA는 3-6으로 지면서 안방에서 스윙패를 당했다. KIA는 5월 24일 다시 만난 KT에 제대로 씩씩

이 3연승을 하며 앞선 스윙패를 갚아줬다. 5월 26일 경기에서는 팀 선발 전원 안타로 17점을 뺏아내는 등 3연전에서 34점을 만들면서 불꽃 화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6월 28일 시작된 원정 3연전에서는 다시 3연패로 반격을 당했다. 8월 17·18일 광주 2연전에서는 각각 1점 차로 승리를 내줬다. KT의 5강 싸움에 날개를 달아준 KIA는 마지막 2연전에서 자존심 지키기에 나선다. 상대의 ‘한 방’을 조심해야 한다. KIA 투수들은 올 시즌 KT에 가장 많은 15개의 피홈런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5개의 홈런이 승부를 결정짓는 결승타로 기록되어 있다. 박경수, 강백호, 황재균, 장성우, 로하스, 심우준, 유한준이 KIA전에서 손맛을 봤다. 강백호가 KIA전에서 때린 2개의 홈런은 모두 결승타가 됐고, 황재균과 로하스는 각각 3개의 홈런을 뺏아냈다. 특히 황재균의 KIA전 세 번째 홈런은 11회 연장 승부에서 나온 끝내기 홈런이었다. KIA가 갈 길 바쁜 KT를 상대로 자존심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여전히 사이영상 선두

경쟁자 셔저·디그롬, 방어율 상승...류, 오늘 콜로라도전 등판

세기의 대결을 벌인 맥스 셔저(워싱턴 내셔널스)와 제이컵 디그롬(뉴욕 메츠)의 평균자책점(ERA)이 나란히 상승했다.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은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계속 이어갔다. 셔저와 디그롬은 4일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 두 팀의 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셔저는 6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슈아냈지만, 홈런 1개와 안타 5개를 맞고 4실점 했다. 7이닝을 던진 디그롬도 홈런 1개와 안타 8개를 허용하고 6점을 줬다. 셔저의 평균자책점은 2.46에서 2.60으로, 디그롬의 평균자책점은 2.66에서 2.76으로 각각 올랐다. 내셔널리그는 물론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 1위 류현진(2.35)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경기에선 메츠가 5-4로 앞선 9회 초 5점을 보태 승리를 눈앞에 뒀지만, 구원진의 난조로 9회 말 7점을 준 바람에 10-11로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다. 8-10으로 따라붙은 9회 말 1사 2·3루에서 워싱턴 커트 스즈키가 좌측 펜스를 넘어가는 역전 결승 끝내기 석 점 홈런을 터뜨렸다. /연합뉴스



패배를 면한 셔저는 그대로 9승 5패를, 승리를 날린 디그롬은 8승 8패를 각각 기록했다. 두 투수 모두 12승을 거둔 류현진보다 승수에서 밀린다. 류현진을 위협하던 또 다른 경쟁자인 마이클 소로카(애틀랜타 브레이브스)도 3경기에서 평균자책점을 내리지 못하고 2.53으로 높였다. 류현진이 5일 오전 11시 10분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최근 3경기의 부진을 떨쳐내고 평균자책점을 떨어뜨리고 승리도 수확한다면 다시 사이영상의 선두 주자로 치고 나갈 수 있다. /연합뉴스

‘데뷔골’ 광주 FC 임원상, 첫 베스트 11

K리그2 26R 미드필더 부문

광주FC의 ‘루키’ 임원상이 첫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축구연맹은 4일 K리그2 26라운드 5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안산 그리너스와 원정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임원상이 미드필더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임원상은 전반 26분 중원에서 펠리페가 머리로 넘겨준 공을 잡아 안산 진영으로 쇄도한 뒤, 상대 수비수와 윙키퍼가 방심한 사이 공을 빼앗아 빈 골



대에 선제골을 쏘았다. 이는 오래 시간 기다렸던 임원상의 프로데뷔골이었다. 팀이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2로 졌지만, 임원상은 재치 있는 골을 선보이며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편 임원상은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2 대표팀에 소집돼 훈련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우승 경험에 자신감 상승 ... 내년 올림픽 금 도전”

이정은 US여자오픈 축하 행사
LPGA 첫 승...세계랭킹 5위로
“신인왕 시상대 오르고 싶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의 루키 이정은(23)이 3개월 전 세계 최고 권위 여자골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감동을 떠올리며 눈물을 보였다. 순천출신의 이정은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US여자오픈 우승 축하 행사에서 US여자오픈 우승 영상을 지켜보다가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는 “3개월이 지나서 잠깐 잊고 있었는데 제가 봐도 멋있다”라며 “아직도 감동이 남아있다. 걱정을 많이 하면서 LPGA 투어에 갔는데 큰 선물을 받아서 감사하다. 신인으로서 큰 대회에서 우승해서 너무나 영광이다”라고 눈물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정은은 지난 6월 제74회 US여자오픈에서 우승했다. 이정은의 LPGA 투어 데뷔 이후 첫 승리였다. 이정은은 “한국에서는 우승해도 그 느낌을 만끽하지 못했는데, 미국 큰 대회에서 우승하니가 초등학교 때부터 골프 한 기억이 생생하게 났다. 그래서 기억이 더 남는다”고 말했다. 이 우승으로 이정은은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100만달러의 우승 상금을 받았고, 세계랭킹을 5위로 끌어 올렸다. US여자오픈을 주관하는 미국골프협회(USGA)는 이정은을 위해 역대 최초로 트로피 투어 행사를 마련했다. 이정은은 한국에 US여자오픈의 진품 ‘하트 S 셉플 트로피’를 들고 왔는데, US여자오픈 트로피가 미국 밖에서 공개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정은은 “진품 트로피는 1년간 집에 보관할 것이다. 이후 USGA에 반납해야 한다. 멋있는 트로피를 들고 한국에 와서 행복하다”고 웃었다. 이후 원본 US여자오픈 트로피는 미국 뉴저지 파월스의 USGA 박물관에 전시된다. US여자오픈 우승은 이정은의 골프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 그는 “LPGA 투어에 진출할 때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루키 시즌에 우승하기 어려운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남은



제74회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하트식’ 이정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US여자오픈 트로피 투어 행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회에서도 우승하고 싶다는 도전 정신이 생겼다”고 달라진 마음가짐을 소개했다. 이정은의 다음 목표는 시즌 2승, 그리고 2020 도쿄 올림픽 출전이다. 이정은은 약 3주일 휴식 뒤 남은 LPGA 투어 대회에 대부분 참가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쉬는 동안 체력을 많이 비축할 계획이다. 그는 “오랜만에 집밥을 먹고 엄마 아빠를 보니 살 것 같다”며 웃었다. 세계랭킹에 따라 출전권이 주어지는 도쿄 올림픽에 대한 열망도 커졌다. 이정은은 “올해 초에는 올림픽 목표가 없었는데 US여자오픈 우승으로 랭킹이 올라가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프랑스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컷 탈락한 이후 스위스에 있는 올림픽 박물관에 갔는데, ‘올림픽 메달을 따면 심장이 될 것 같다’는 목표가 생겼다”며 “올겨울 혹독하게 훈련해 올림픽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이정은은 LPGA 투어 데뷔와 함께 내건 ‘신인왕’ 목표에는 거의 다가갔다. 그의 신인왕 포인트는 1217점으로 2위 크리스틴 길먼(미국)의 488점의 약 2.5배에 달한다. 이정은은 “신인왕 목표에 가까이 온 것 같다. 잘 마무리해서 시상식에 올라 영어로 거창하게 소감을 말하며 신인왕을 얻고 싶다”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연합뉴스